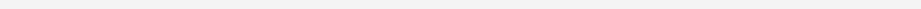


문학 파이널 정리용



Veritas



1 세계의자아화 , EBS해설과 실제기출 의 다른관점 비교

이번 현대시세트 24번에서 올해 수능의 현대시 연계의 포인트가 보입니다.

바로 24번 문제의 2번선지입니다.

지금까지, 감으로 풀어서 맞았다면 수능에서는 이보다 더 어렵게 출제되기때문에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능 현대시 오답률 top 이대략 보입니다.

선지표현 조금만 바꾸면 되거든요.

(이런건 사실이 할수 업습니다. 그정도의 내공을가진문제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홍안령을 음산을 아무우르를 송가리를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매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나는 그때

㉡ 자작나무와 이갈나무의 슬피하던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의 불드던 말도 잊지 않았다

㉢ 오로촌이 뱃돌을 잡아 나를 잔치해 보내던 것도

솔몬이 십릿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때

㉣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

그리하여 따사한 햇귀에서 하이얀 옷을 입고 태끄러운 밥을

먹고 단 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그동안 들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
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리하여 또 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

㉤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래구름만
혼자 넋 없이 떠도는데

㉥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량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 백석, 『북방에서-정현웅에게』 -

24.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여러 민족, 나라, 지명을 열거하여, 화자가 떠난 공간을 북방으로 포괄되는 동질적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에서는 의인화된 자연물을 제시하여, 화자가 북방을 떠나면서 느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에서는 이별하던 장면을 유사한 통사 구조로 제시하여, 화자가 북방에서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의 시구가 ㉠에서 반복, 변주되는 것을 통해, 상반된 상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에서 '없다'와 그 앞에 열거된 시어들을 통해, 화자가 가깝게 느끼고 가치를 부여했던 것들이 부재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 문제는 쉽지만, 올 수능은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EBS교재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북방을 떠나 돌아온 화자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한 후 현재의 모습을 성찰하는 방식으로 시상전개"

<2번선지>

★EBS해설 : 자연물이 '나' 가 북방을 떠나는것을 아쉬워함

★9평 선지 : 화자가 슬퍼함

만일, 서정갈래의 핵심인 '세계의자아화' 대로 시감상이 안된다면 이보다 조금만 더 어렵게 선지를 바꾸면 오답률이 많이 상승합니다. 특히 올해 주의해야 합니다.

올해 EBS작품을 단순히 암기만 하면 별 도움이 안 될수도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선택지입니다.

"나무의 슬퍼하던것을 기억한다"

여러분이 내신때 열심히 공부했던 ★세계의자아화 부분입니다.

나무가 슬퍼하는게 아니죠?

화자의 정서(내면)가 슬프니 모든 대상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표현을 혹시 모른다면 기출을 반드시 다시 공부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화자의 정서를 의인화된 대상에 투영시킨다....라고 배웠을겁니다.)

김광균 추월서정 : 화자의 내면의 정서가 느껴지시죠?

'길은 한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 '고독한 반원을 굶고 잠기어 간다'

<4번선지>

★EBS해설: ㄹ-괴로운현실을 회피하려는 태도 , ㄴ-일제의탄압으로한반도에서 살기어려운처지에 놓임

★9평선지: 상반된 상황이 시간의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을 드러냄

당연히 EBS해설로는 "상반된상황" 과 "시간의추이에따른 일치되는 과정" 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감상독해후 풀지, 암기한거 떠올릴지, 허용근거를 의미와함께 "단어" 로 일단 체크할지,,, 어떻게 판단하는게 쉬울까요?

(실전에 몇초만에 완벽한 심상을 그려내는건 어렵습니다. 평가원에 맞는 선지판단 태도 정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말 어려운시가 비연계로 나올걸로 예상됩니다. 철학적,성찰분야로 예상되빈다!! 어쨌든 시가너무 난해 할때에는 이럴때는 상황만 판단하세요. 화자는 어디서 뭘보고 뭐하고 있지? 실전에서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ㄹ-슬픔시름 없이

ㄹ-슬픔시름 쫓겨

이렇게 단어위주로 보니, 쉽게 처리가능합니다.

★상반된 상황: ~없이:긍정상황, ~쫓겨:부정상황

ㄹ-슬픔시름없는상황.ㄹ-슬픔시름에쫓기는상황. OK!

(그동안-시간의 추이)

★일치되는과정: 단어로 체크하니 마찬가지로 너무쉽고 빠르게 판단가능합니다. 둘의상황이 당연 일치하지않죠? NO!

지금까지 이러한 선지를 감으로 찍었다면,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문학 <보기>로 주제 잡고 부분문제들을 1번부터 차례로 하나하나 와리가리 판단하는게 아니고,

빠르게 선택지를 추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TMI: 2017학년 9평의 현대시 신석정 <꽃덤불> 꼭 풀어보세요.

당시 EBS해설은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노래'. 그렇게알고있던 바로그시가 9평에서는 "사랑" 이라는 주제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보기>로 해석 감상의기준을 완전히 다르게 바꿀경우 ebs암기러들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ebs연계리는게 어디까지인지는 기출통해 스스로 느껴야합니다.

2 <보기>로 주제잡고 선지 추려 부분문제 뚫기

여러분들중에 혹시 비문학 문학 할거없이 모든 선지를 1번부터 차례대로 판단하고 있으신분, 이글을 읽고나면 시간과 속도 정확도가 꽤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대시의 경우에는 <보기> 로 주제(긍정/부정)로 잡고 부분문제들의 서술부를 먼저 체크하며 판단할 선지를 추리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독해 감상후 '주제' 잡고하면되지만 1,2등급이 아닌이상 시 감상독해 자체가 자체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또는 저처럼 보기부터 보며 주제잡고 감상독해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후자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편한대로 하세요.

수능까지 짧은시간동안 조금이라도 문학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것이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먼저 올해 6평으로 설명하겠습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연과 절대자는 각각 인간에게 안식을 주거나 인간과 세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준거로 인식되어 왔다. (가)는 세속의 일상을 떠나 자연에 들어온 화자가 점차 자연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과 심리 상태를 그리고 있다. (나)는 자신과 세계 인식의 준거였던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가) 는 자연에 들어온 화자가 점차 자연에 동화되어간다고 합니다. + 긍정으로 주제가 쉽게 잡힙니다.

(가 주제: 속세를 떠난 화자가 자연과 동화되는 과정ㅇ 卍서의 내면심리)

(나 주제: 기존에민던 절대자와의 관계이 회의가들어 이제는 내가경험한것만 믿겠다는태도)

아래 문제의 서술부를 빠르게 훑어보세요. (가- 작품은 1~3번 선지입니다.)

3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상이 이전에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② ㉡은 '저녁 연기의 형상으로 '한 가정'의 상황과 처지를 시각화한 표현이다.
- ③ ㉢은 '맨살'을 드러낸 '들들'이 부대끼는 형상으로 세파에 시달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④ ㉣은 '차를 마시는 것이 화자의 선호에 따른 주체적 행위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⑤ ㉣은 '나'에 대한 현재의 인식이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3번선지 서술부에

"세파에 시달리는 모습" 이 보이시죠?

주제와 반대되는 표현이니 바로 이선지부터 체크 하면됩니다.

(시는 세계의 자아화 즉 , 묘사된 사실부분과 화자의 상상부분으로 크게 나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도 묘사와 정서가 드러나는 선지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1,2 번 선지는 먼저 판단하지 않습니다.)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인격화한 대상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내포하고 있다.
- ② (나)는 대상을 한정하는 어휘들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포착된 사물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화자를 거듭 명시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에 화자의 정서를 투영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선지에 두개씩 판단해야 하는 형식의 선지입니다. 이런선지 빠르게 판단못하면 시간안에 풀수없습니다.

서술부체크- 필연적으로 맞는 표현들은 먼저 판단하지 않습니다.

(1번- 화자의 심리, 2번 - 주제의식, 3번-화자의태도, 4번- 시상전개)

5번선지는 '친밀감' 입니다. 필연성이 없기때문에 당연히 이선지부터 판단해야합니다. 이렇게 풀면 상당한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9평에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판적 태도로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역사적 상황을 묘사하여 비극적 현실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영탄적 어조로 대상에 대한 '나'의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나'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3번의 "나의 인식" 보이시죠? 인식이 없는 시는 없으니 바로 이선지부터 판단합니다.

(부정적측면,비극현실,경외감,그리움은 보편적이지 않은 특정된 상황이라 필연성을 갖고있지않기에 판단이 필요한 표현입니다.)

빗대어표현은 비유이니 이것도 지문 같것도 없이 필연적으로 맞습니다. (문학이란 이상과 현실의괴리 에 대한 메타포 입니다)

딱 3초짜리 문제입니다.^^

3 필연적으로 적절한 표현통해 빠르게 풀기

문학에서 '필연성'을 갖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선지하나에 2개를 판단해야하는데 이걸모르면 문제하나에 총 10개를 판단해야합니다. 이러면 시간안에 풀기어렵습니다.

(보통 형식을 주로 앞쪽에 내용을 주로 뒤쪽에 배치합니다)

<뒤에 배치>

- 상황(처지). 분위기. 주제 (주제의식강조).대상속성.
- 정서(심리,심정).인식(인상).태도.시상전개. 리듬감. 묘사.

<앞에 배치>

- 감각적이미지. 비유. 상징...

*위의 표현들은 시(서정갈래) 이기때문에 당연하다 납득해야합니다.

상황,주제,분위기,정서,인식,태도,...가 없는 시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비유,감각적이미지(최소한 시각은 있으니까요)...가 없는 시가 있을까요~ 이렇게 납득해야합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판단방법**: 먼저 뒤의 내용으로 선지추린후 해당 선지들만 판단합니다. 여러개가 추려졌다면 앞의 형식 체크는 간단한 것부터 체크하면 되겠지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16.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색채어의 대비를 통해 대상을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② (나)는 명령형 어미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다)는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이걸 뭐 볼것도 없이 4번이네요.

< 2025 6평 고전시가 >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열거의 방식을, (나)는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여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해학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 간의 우호적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이걸 1번신지부터 판단하러 가면되겠네요!

<2025 3월>

1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미련을 부각한다.
- ② (가)는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다)는 유사한 구절을 상응시켜 화자의 인식을 부각한다.
- ③ (가)와 (다)는 모두, 계절의 변화를 제시하여 경관의 다양한 변화를 표현한다.
- ④ (나)는 장소의 이동을, (다)는 시간의 흐름을 제시하여 그에 따라 생겨나는 삶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낸다.
- ⑤ (가), (나)는 점층적 표현을, (다)는 연쇄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낸다.

→ 이것도 2번선지부터 판단하러 가면됩니다.

<2025 6평 현대시>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선지부터.

- ① (가)는 인격화한 대상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내포하고 있다.
- ② (나)는 대상을 한정하는 어휘들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포착된 사물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화자를 거듭 명시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에 화자의 정서를 투영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당연 5번선지부터 판단하러가면 됩니다.

<2025 9평 현대시>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판적 태도로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역사적 상황을 묘사하여 비극적 현실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비유}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 ④ 영탄적 어조로 대상에 대한 '나'의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나'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판단할 필요하러 갈 필요도 없네요!

<2024 9평 >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묘사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 ④ 과거의 장면을 회상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원인을 포착하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내고 있다.

→ 1,2,3 번 차례대로 판단할까 하다가 앞에 묘사가 보이니 그냥 답입니다. (서정갈래 디폴트값: 묘사/독백. ★★작수에는 묘사 나왔습니다. ★묘사/독백 없는 시는 없으니까요. 대화체는 예외차리하면 쉽습니다!)

<2024 6평>고전시가 + 수필.

22. [A]~[E]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① [A]는 자연물을 대상화하여 그 자연물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추상가르움
 - ② [B]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인간과 자연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C]는 성현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화자가 지닌 궁극증을 드러내고 있다. 구설의
 - ④ [D]는 점층적인 표현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다. **= 성찰**
 - ⑤ [E]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글쓴이의 상태를 부각하고 있다. 이름에 비어있긴 자신 성찰
↓
수필은 필연적.
(경험→ 깨달음→ 성찰/비판)
- 무조건 맞는 선택

→ 수필 즉 교술갈래 알면 당연 5번이 답입니다. 성찰/비판은 교술갈래 필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 깨달음→ 성찰/비판)

<2022 수능 현대시+수필>

1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악화, 비극 주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주체
- ②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주체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 칸이 좋아/그외회/기향대상.
- 수필 ← ③ (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다)에서는 모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 X
- ⑤ (가), (나), (다)에서는 모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식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 (나) X

→ (다)는 수필입니다. 3번 성찰 보이시죠?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1연과 6연에서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 인식을 보여 준다.
- ② (가)는 4연과 9연에서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내용적 의의*
- ③ (나)는 반복적인 표현을 제시하면서 쉽표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한다.
- ④ (가)는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나)는 반복되는 행위를 제시하여 대상의 효용성을 드러낸다.
- ⑤ (가)는 같은 시구를 5연, 10연의 마지막에서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나)는 1연 끝 문장의 시어를 2연 첫 문장으로 연결하며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님 X 너무나 세상에 대해

→ 기출분석 잘되어있다면 4번찍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보기>기준 가. 주제는 “부재하는님을기다리며 더나은세상을소망(지향)” 하는 시입니다. 대상은 님 이기때문에 양면성 허용불가합니다.

<보기 > 로 이 령게 주제잡는게 편할지 보기. 없이 바로 감상독해후 주제잡는게 편할지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조지훈<맹세> 감상후 주제잡아보세요~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보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감상독해 하는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
- ② (가)는 동일한 색채어를, (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사라져 가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 ④ (나)는 사물을 객관적으로 관조함으로써, (다)는 세태를 관망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대상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연쇄적으로 제시한다.

→ 2번, 4번 선지 둘다 봐야하는데 다행히 4번에 "관조.관망" 이 보입니다.

***관조: 대상의 객관적 인식이니 이게 주제라면 시 라고 할수 없겠지요? 시는 세그네 의자아화! 객관적 묘사(사실)보다 화자의 내면(정서)을 비유로 드러내는 것이 시 아닐까요!

- 1) 나무가 한그루 서있다: 관조.묘사. 있는 그대로 표현.
- 2) 나무가 슬퍼보인다 : 세계의자아화. 박목월의 나무 라는시를 보면 <보기> 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
"화자는 나무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한다"
작품: 나무가 외로워 보였다.
나무가 외로운게 아니고 화자의 내면(정서) 이 외로운겁니다.

EBS 연계 공부할때 단순 암기하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4 실전적 시 감상법

시 감상이 잘안되는 친구들은, 실전에서 <보기> 를 적극활용해보세요. 보기. 를 통해서도 주제를 잡을수 있습니다. 이전칼럼 참고. 최소한 아래정도만 감상할수있으면 문제 푸는데는 지장없습니다. 아래내용대로 기출과 ebs에 적용해보세요.

<상황 판단>

아래글 읽고 감상해보기.

화자는 어디서 뭘보고(상황) 뭘생각(상상.정서)하고 어떻게 하겠다는(태도)거지?

(가)

내 오늘밤 한오리 갈댓잎에 몸을 실어 이 아득한 바다 속 창
망(蒼茫)한 물구비에 씻기는 한점 바위에 누웠나니



생(生)은 갈수록 고달프고 나의 몸들 곳은 아무데도 없다 파
도는 물려와 몸부림치며 바위를 물어뜯고 넘쳐나는데 내 귀가
듣는것은 마즈막 ㉠ 물결소리 먼 해일에 젖어 오는 그 목소리뿐
공감각 (평상→지각)

아픈 가슴을 어찌란 말이나 허공에 던져진것은 나만이 아닌데
하늘에 달이 그렇거니 수많은 별들이 다 그렇거니 이 광대무변
(廣大無邊)한 우주의 한알 모래인 지구의 둘레를 찰랑이는 접시
물 아아 바다여 너 또한 그렇거니

내 오늘 바다 속 한점 바위에 누워 하늘을 덮는 나의 사념이
이다지도 작음을 비로소 깨닫는다

⇒보기:인간존재
에대한관심



- 조지훈, 「묘망」 -



★실전감상 :

화자는 밤 바닷가 바위에 누워 파도소리들으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실 오랫동안 가르쳐본결과 3-4등급은 이렇게도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았습비다. 그런데 이걸 본인이 모르는게 더 문제였습니다.

깊이있는 심상 은 이정도는 아주 쉽게 잡힌후에 연습하세요.

참고로 실전에서는 아주 깊이 있는 심상 안잡혀도 (작가의 창작의도를 정확히 | 알 수 있을까요?) 문제 푸는데 지장없습니다~^^

사는게 힘든가봅니다(생은갈수록 고달프고 몸들곳은 없다고합니다). 허공에 던져진건 나만이 아니라 달. 별. 심지어 바다도 그렇다고 합니다.

마지막연에 '인식의 전환'이 보입니다.

부정적생각에 잠겨있던 화자는 나의 사념이 별거 아님을 깨달았다고 하네요.

어렵지 않죠?

★★★조금더 깊은 감상★★★

몸들곳이 아무곳도없어서 겨우 바위에 누운화자, 바다마저 바위를 물어뜯으려하네요 나는 여기(바위)밖에있을곳이없는데. 바위가 물어뜯겨도 그럼에도 나는 파도소리만 들릴뿐입니다.(물론 바다의파도를 세계의자아화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사는게 갈수록 너무 힘들기때문입니다. 주변을살펴볼여력도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런적이 있나요? 상황

이너무 힘들어 또다른힘든상황에는 신경쓸거를도없는...

바위에 누워 힘들어하는데 하늘의 달과 별도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상과 동일시/동질감 이라는 중요한개념이죠!)

별도 달도 다그러니 어쩔수없구나 사는데 다 이런거구나 라고 생각하는순간,

아 그런데 갑자기 깨닫습니다.

그렇지않은줄알았던 '바다'마저도 그저 우주적차원에서는 접시물정도라는거.

마지막연에서 이제표현을 바꿉니다. '주제연'이니 집중해서 의식적으로 화자의 태도가 어떤지를 봐야 겠죠.

1연에서는 바위를 바다물에씻끼는바위로, 여기서는 이제 아득하지도 창망하지도 않은 그냥 바다... 바꾸어표현합니다.

(바다또한 접시물정도라는걸 깨달았으니)

조금더 깊이 들어갈수있지만 굳이 그럴필요까지는 없아보입니다.

심상 그럴때 주의하셔야할건 불필요하게 너무 깊이 들어가는겁니다. 그러다 잘못하면 주관적해석에 빠질위험이 있으니 1,2등급외에는 "실전감상" 정도로 하시고 보기. 기준으로 문제에 접근하면 빠르고쉽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상보고 회상하는 시기법, 자주 나오는 시상전개방식이니 기출통해 연습하세요>

*김종길 성탄제: 눈을보며 유년시절 아버지의 사랑회상

*윤동주 별헤는밤: 별을 보며 고향 회상

*이호우 달밤 : 달을보며 고향 회상.

*백석 여승 : 여승보며 여승의 과거회상.

*니희덕 못위의잠 : 아빠제비보며 과거회상.

(이외에도 너무많죠)

*****연계작품 추일서정입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작품중 하나입니다)**

(가)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포화(砲火)에 이즈러진

도룬 시(市)의 가을 하늘을 생각케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세로광지(紙)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밭길로 차며

호올로 ^{=분한}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굶고 잠기어 간다

선경
후정



- 김광균, 「추일서정」 -

실전감상:

화자는 낙엽을 보고있는데 그낙엽이 폴란드망명지폐처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길은 구겨진넥타이로 보이고 공장의 굴뚝은이빨처럼보입니다(세계의자아화)

풀벌레소리 들으며 쓸쓸한 생각하며 걷고있는데 (당연하죠? 지금까지 표현한거보면)

갑자기 허공에 돌을 던집니다. 근데 그 돌이 반원긱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고독ㅎㅏ다 고 표현합니다. 주제네요.

화자의 내면정서는 고독한상태입니다. 뭘봐도 좋게 보일리는 없겠쥌!

선경후정도보입니다.

대상들을보고 시선이 내면으로 옮겨가니까요(황량한.고독한)

***ebs 주제- 가을날의황량한풍경과 고독감.**

★수능 연계 포인트: 3연의 "길은 한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ebs해설- 구불구불이어진 길의 모습형상화.(암기금지!)

★★수능연계 포인트- 화자는 길을 통해 또는 대상을 통해 가을날의 고독함을 드러낸다.
(올 9평과 24번 2번선지와 동일하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EBS 연계는 낮은등급 학생들은 단순암기로 접근하려 했고 그결과 는 좋지 못하고... 연
계라는걸 구체적으로 비교해주는건 없고,,
내신이 아니기에 ebs그대로 낼수없고 암기한거 물어보는게 수능 취지도 아닙니다.
이걸염두해 둔다면 , ebs공부법이 달라져야합니다!

(나)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늪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떼를 저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
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
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공관**

-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
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
게 되었다. **→나무에게 동경감** - 박목월, 「나무」-

실전감상:

화자 는 이동중인거 같습니다.

나무들을 보며 수도승, 과객, 파수병...으로보다가 갑자기 "외로워 보인다" 라고 하네요. 또 세계의자
야화입니다.

서울와서도 계속 고독감은 없어지지 않니봅니다. 주제네요.

사실 이 시는 심상 잘 잡지 않아도 문제푸는데 지장은없던 시험이었습니다. 아래 <보기> 보세요.

<보 기>

(가), (나)의 화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대상에 **공감**한다. (가)의 화자는 병원에서 본 '여자'의 모습에 주목하고 '여자'의 아픔에 비추어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며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다. (나)의 화자는 여행 중에 만난 '나무'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한다. 이를 통해 (가), (나)의 화자는 대상과의 **동질성**을 확인한다.

=동질성

→ 외로움

아! 화자는 여행중이었고 그때마다 본 나무들 모습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자신인식!) 하고 , 나무들모습에 드러나는 정서(외로움)에 공감한다고 합니다.

세계의자아화를 이전기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계의자아화는 문학을 4분법으로 나눈 특정 교수님의 이론이고 교과서에 나오는개념이라 배워야했겠지만 , 수능에서는 이표현을 계속 바꿔 표현해 왔습니다.

2008 수능 현대시 <보기>내용 읽어보세요.

<보 기>

서정적 자아는 세계를 내면화한다. 이런 작용으로 서정시에서 자아는 상상적으로 세계와 하나가 된다. 그렇지만 근대 이후의 문명사회에서 자아와 세계의 조화나 통일은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근대 이후의 서정시에서는 자아와 세계 사이의 분열에 대한 자아의 반응을 함축하고 있는 시어들이 자주 나타난다.

문제 볼까요?

- ① (가)의 화자는 '병원 뒤뜰'에 누워 있는 '여자'를 관찰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여로에서 만난 '나무'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의 처지에, (나)의 화자는 '나무'에게서 본 '수도승', '과객', '파수병'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다.** *성찰.*
- ③ (가)의 화자는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에 대한 **원망을 '여자'와 공유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다.** *추공감, =물리적거리, 공감 = 심리적거리*
- ④ (가)의 화자는 '금잔화 한 포기'를 꽃고 병실로 들어가는 '여자'에게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읽어 냄으로써,** (나)의 화자는 '나무'들이 '외로워 보였다'고 표현함으로써 **대상에 공감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그가 누웠던' 곳에 '누워 본다'고 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뽑아낼 수 없'는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나)선지만 보세요!

★2번선지와 수능 연계포인트: 나무들을 수도승.파수병.과객으로 표현한것은 투명한거니 자신의모습을 비추어보고있는거죠.

★3번선지와 수능연계포인트: 대상과의 거리는 물리적인아닌 심리적거리이니 투영했다는거자체가 가까운거죠. (위치확인후 좁히려한다는건 물리적인 표현이니 서정갈래에서 절대 답이 될수 없습니다.

★4번선지와수능연계 포인트: 세계의자아화인데 의인화 시킴으로 인간만 할수 있는 정서를 드러내어 대상에 공감한다라고 하네요.

화자는 나무를통해 외로움을 드러낸다. 화자는 대상의 정서에 공감한다. 그냥 같은표현 이네요.

*공감: 나도 그렇다고 느끼는것! 또는 관심정도.

(대상을 의인화시켜야 공감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으니까요)

★5번선지와 수능연계 포인트: 대상과의 동일시 여부를 묻고있습니다. 표현 그대로입니다. 동일시! 동질감!

(문학에서 "공감여부". "동일시". "인식의전환". 은 핵심이니만큼 어떤갈래든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참 유용한 도구로사용가능합니다.)

EBS 로 연계학습할때 단순히 암기하지말고, 기출보며 이렇게 적용하는 연습하세요~^^

5 현대소설 필연적으로 판단보류해야 하는 표현들!

현대소설도 기출분석하다보면 "판단보류" 하고 넘겨야할 필연성을 가진 선지들이 존재합니다. 기출분석 잘하신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이걸 모르고 알고의 중요한 차이... 풀이시간 확보!
(글이너무 길어지니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판단 보류>

- 서술자를 달리하여~
- 빈번한 장면전환~
- 객관적~
- 사건의 동시적 병치(병렬)~
- 과거(꿈)와 현재(현실)의 교차~
- 액자식(내화. 외화)~ , 삽화식~
- 사건 입체적~
- 갈등해소~
- 성격변화~

수능: 시련의 정의!

3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 회상을 통해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 ②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긍정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이야기 내부 인물이 자신의 내면을 진술하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병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주인공
1인칭4행
의 필연성

1인칭 주인공

2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액자식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②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 ⑤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계절의 변화에 대한 묘사를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34.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 ②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치하여 서사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③ 주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시대적 배경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사회적 문제를 현실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 ⑤ 작품 속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개하여 자신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인칭 주인공

22. [A]와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회상 장면을 삽입하여,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여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A]는 구어체를 활용하여 경험한 사실을, [B]는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관찰하고 있는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③ [A]는 공간 이동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B]는 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들의 외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④ [A]는 인물 간의 대화를 삽입하여, [B]는 인물들의 반복되는 행동을 제시하여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A]는 중심인물의 말을 제시하여, [B]는 주변 인물의 말을 제시하여 사건들의 인과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심리위주 (※ 인과관계)

<2025 6평>

이건 1인칭시점의 개념이죠

서술시각 1인칭

27. ㉠~㉣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의 지각 내용을 '나'가 서술하는 상황으로 인물과 서술자가 겹쳐 있다.
- ② ㉡: 서술의 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뚜렷이 구분된다. → 둘 다 '나'
- ③ ㉢: '나'가 아니라 '나'가 지각하는 대상을 주어로 서술함으로써 지각의 대상을 부각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건
- ④ ㉣: 인용 부호 없이 서술된 발화에서 인물의 목소리가 드러난다.
- ⑤ ㉤: 지각의 주체를 알리는 표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누가 지각한 바를 서술한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 빚어진다.

3인칭



28. [A]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행위를 사실적으로 그려 내어 내적 갈등을 표면화하고 있다. X
- ②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인물이 겪는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X
- ③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X → 보통의 경우 주인공의 심리적 대조기법 통해 심화되겠.
- ④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인물의 특징을 관찰하여 알려 주고 있다. X = 초점화자
- ⑤ 서술자가 인물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X

*3인칭은,

그동안 꾸준히 나오던 “초점화자: 시점제한” 모르면 시간단축 불가능합니다.

판단법- “전지전능한 서술자가 아닌 특정 인물 의 시각에서 다른 등장인물 관찰로 시점제한”

(혹시 모르는분들은 반드시 '화산택이' 로 꼭! 감잡으세요. 등장인물중에 말한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서술자가 개입한 거다.

이게 핵심입니다!)

<화산택이> 초점화자.

서술자 - 초점화자 구분 → 제한적 시점

27.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성격이 다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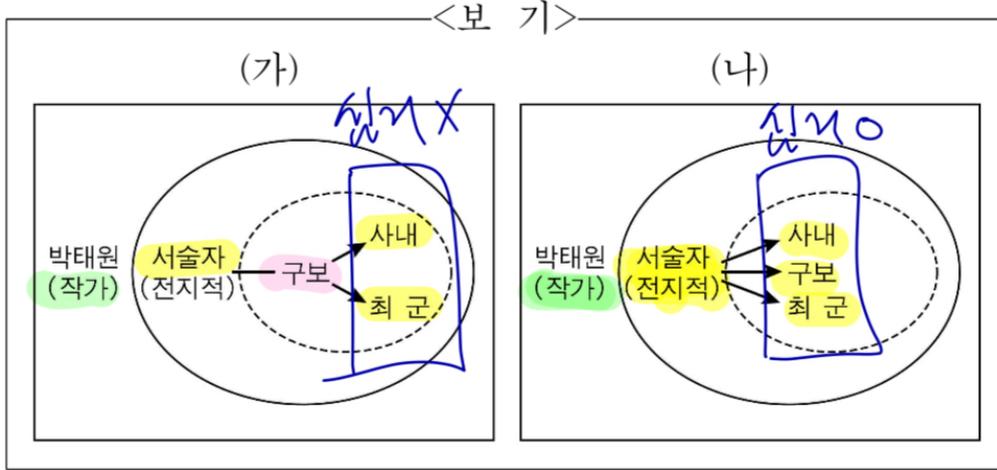
3인칭
*** 등장인물 (직접 보기)**

서술자는 자신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거나, 인물의 시각에서 인물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여 서술한다. 즉 '서술'은 서술자가 담당하지만 '시각'은 서술자의 것일 수도, 인물의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초점화자

<소설가구보씨의일일>: 초점화자.

3. 위 글은 <보기> (가)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를 (나)의 시점으로 바꾸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삼대> 초점화자.

<보기> **중략: 덩기 (나)**

「삼대」의 서술자는 대체로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하여** 다른 인물을 서술 대상으로 포착한다. 이때 그 **특정 인물은** 장면에 따라 선택되며, 서술자는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 서술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 준다. 이러한 서술 방식으로 서술자는 **특정 인물이 지닌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그에 대한 평가**를 복합적으로 드러낸다.

- 1인칭은, 을 6평에도 출제된 "인식의전환" 이 매우 중요합니다.
-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출제되었으니 1인칭소설만 다시 확인해보세요.
- <보기> 없이 아버지에 대한 인식의전환 잡을수 있어야 합니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인칭 주안점**

<보 기>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을 돌이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심리 요법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기억 재응고화'는 마음의 상처로 남은 기억을 재구성하여 다른 의미와 가치에 대응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 기억으로 빚어진 심리적 불안정에 대응할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원리이다.

① '낙인'과도 같은 유년의 기억을 성인이 되어서도 떨쳐 버리지 못했다는 고백에 비추어 보면, 응고된 기억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②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을 유발한 동인을 추적해 보면, '아버지'에 관한 기억이 마음의 상처로 남음으로써 '나의 심리적 불안정이 비롯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겠군.

③ '줄 묶음'을 '내던지'는 '노인'의 행위와 '물 사발'을 올리는 '어머니'의 행위가 이어지며 제시되는 부분을 보면, '나의 기억을 재응고화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겠군.

④ '모래밭'에서의 '어머니' 형상과 '사내의 환영'이 어우러지는 장면에서, '아버지'에 대해 굳어져 있던 기억이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된다고 할 수 있겠군.

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유해'에 대응되면서 '나의 정서적 반응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면, 부정적인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회복해 가는 경위를 엿볼 수 있겠군.

→ **인칭의 전환** ←

6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주인공심리와 대조되는 상황과 배경

오늘주제는 바로 "★주인공 심리와 대조되는 배경 또는 상황" 입니다.

실전적 접근법!

바로 갑니다.

9평부터 볼까요?

감도 윤도 아닌 수능의 필연적 구조입니다.

★<2025 9평 현대소설>

뭉텅 잘려져 나간 사람이 있고 그 팔 값을 찾아 주려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선 몸에 걸치는 옷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러는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장상태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는 것 같았다.

(중략) **장면전환**

체육 대회가 열리는 제1 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되는데도 여전히 멍기적거리고만 있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시종 근심스런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제복 때문에 총각 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았다.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권세 공감X → 사무직사원

주인공의 내면심리와 대조 등장.

총각사원 ↔ 민도식 행동권

보이지요? 주인공 민도식의 내면(심리)과 대조되는 총각사원의 등장!

우유부단한 주인공 - 행동으로 옮기는 총각사원.

이런ㄱ | 출 분석이 되어야 어떤선지의 표현에도 빠르게 판단할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29번문제의 4번선지에 보입니다.

총각사원-아내의 반응이기에 매우 쉬운판단이지만

★그. 러. 나. 기출통해 얼마든지 어렵게 출제 가능한지도 알아야 합니다.

29. ㉠의 의미와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미 끝난 이야기'라는 말로 보아, 남자 사원들 중에 ㉠을 마저 입을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힘약해진 분위기'로 보아, ㉠과 관련된 문제로 남자 사원들 사이에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X
- ③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말로 보아, 권 씨도 남자 사원들과 마찬가지로 ㉠을 마저 입을지를 선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총각 사원 하나'에 대한 아내의 반응으로 보아, 아내는 총각 사원이 ㉠ 때문에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소문을 믿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검정 곤색 일색'으로 보아, 체육 대회에 참석한 전체 사원이 ㉠을 마저 입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도적 인물과
관련 없음

시무직권득

“그래그래, 어쨌든 너희들은 좋은 일 했으니 천당 가도 되겠다.”

소대장이 병을 기울였고 다른 녀석들도 킬킬대며 ㉞ 한마디씩 보태었다. **공감X** **‘나’의 내면세계와 대조**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㉟저것 바라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가슴과 팔목에 철삿줄을 동여맨 채 사내는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쾅하니 열려 있는 그 사내의 눈은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채로였다. 애앵. 총성이 울렸고 그는 허물어지듯 앞으로 고꾸라지고 있었다. ㉡불현듯 시야가 부영게 흐려 왔다.

아아.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쭈부쟁이와 엉경귀꽃을 지천으로 피워 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응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 임철우, 「아버지의 땅」 -

올 6평은 아주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지문입니다.

(같은작품 다른지문을 첨부했으니 꼭 읽어보세여)

중략전 엄마에의해 언급된 아버지의죄(주인공은 중략후에 아버지의 죄와 상관없이 인식의전환이 일어납니다.) 가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해하며 읽어야합니다.

—> 단순히 일찍 돌아가신걸 가지고 엄마가 죄라고 하시진 않으실겁니다.

<중략전>

아버지의 죄.

엄청난 죄악감.

<중략후>

군대간 나+오일병 참호파다 유해수습. (오일병 놓쳤으면 독해실패)

노인의 유해수습보며 회상(생각).

소대장의 술 받으며 회상(생각).

아버지의 환영보임.

인식의전환. (기억의 재응고화).

★전체구조: 중략전 - 기억재응고화 전인상태.
 중략후 - 기억 재응고화.

중략이후는 “내가 노인을 통해 → 회상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노인 유해발굴통해 첫번째로 아버지에 대한

인식의전환(- → +)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두번째로 인식전환 제대로 되는 지점입니다.

소대장과다른병사들은 낱낱대고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주인공심리 <→> 소대원들심리).

독해시 그냥 넘기느냐 이런 필연적구조를 인식하느냐!!

<6평은 이부분이 어떻게 출제되었을까요?>

3번선지!

9평과 다른 표현으로 질문하는게 보이시죠!

9평보다 오답률이 꽤 높습니다. 이런문제는 몇초만에 찍고 넘어가야합니다.

주의해야할건 주인공과 대비되는 심리를 , 긴장감완화 라고 암기하면 안됩니다. 주인공심리 더 강조 라고
고도 하거든요.

(당연... 으로 납득해야합니다)

그러니 낱낱대는 심리가... 주제/결말/위기고조/이야기전모 는 결코 허용될수 없겠죠.



28. 윗글에서 ㉠와 ㉡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이야기의 심화된 주제를 구현하는 제재라면, ㉡는 이야기의 주제를 가늠하도록 하는 단서이다.
- ② ㉠가 이야기를 절정에 치닫도록 하는 추진력이라면, ㉡는 이야기를 결말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다.
- ③ ㉠가 이야기의 긴장감이 형성되는 요인이라면, ㉡는 이야기의 긴장감이 완화됨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 ④ ㉠가 이야기의 위기감이 해소된 종착점이라면, ㉡는 이야기의 위기감이 고조된 정점이다.
- ⑤ ㉠가 이야기를 일으키는 시발점이라면, ㉡는 이야기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는 귀결점이다.

★*교육청버전* - 나목-

아들들 모두 사고로 죽고 딸하나 남아 있지만 , 어머니는 평생 죽은 아들들 생각에 “나” 는삶의 염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픈 어머니 병간호하다 바람소리에 그제서야 보이는

“꽃보다 찬란하고 화려한 노란 은행나무!”

주인공-나의 심리와 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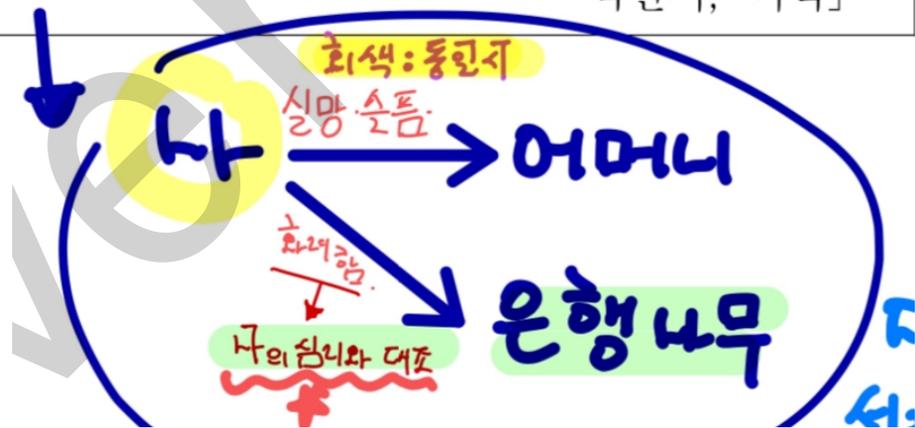
그러나 빛나던 어머니의 눈이 점점 귀찮다는 듯이 게슴츠레 감기며 나에게 잡혔던 손을 슬그머니 빼내고 부시시 돌아눕더니 휴 하고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쉬었다.

“어쩌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들들은 몽땅 잡아가지고 계집애만 남겨 놓으셨노.”

나는 비실비실 일어섰다. 간신히 안방 미닫이를 열고 대청으로 나왔다. 시야가 부엌에 흐려 보였다. 나는 그 부엌 것을 헤치려고 자꾸만 눈을 꿈벅이며 북창문을 열었다. 우수수하고 스산한 바람이 치마폭으로 펄렁 안겨왔다. 나는 맥없이 몸을 떨었다. 바람이 다시 뒷마당을 [A] 골고루 휩쓸었다. 쇠아 하고 정원수들이 상쾌하고도 툭툭 디추운 소리를 냈다. 나는 비로소 자지러지게 노오란 은행나무를 보았다. 화려한 광경이었다.

그는 얼마나 풍부한 의상을 걸쳤기에 저렇게 노란 빛들을 마구 쏟아놓고도 저렇게 변함없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걸까? 그것은 꽃보다도 훨씬 찬란했다.

- 박완서, 「나목」 -



아래 문제 보세요. 완전 클리셰 그 자체입니다.

35 [A]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심리**

- ① 분위기 반전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로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상징적 소재를 통해 작품의 시대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사건 진행의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시간의 흐름이 빠
- ⑤ 인물의 내면과 대비되는 배경을 통해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은행나무: 나의 심리와 대조

★*평가원 버전* - 나목-

(중략) **나를 기억하려 노력하는 것**

옆에 앉은 남편도 풍선을 쫓았던가 고개를 젓힌 채 눈이 함빡 하늘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뿐, 이미 그의 눈엔 10년 전의 옛된 갈망은 없다. 그뿐이라. 여자를 소유하고 가정을 갖고 싶다는 **세속적인 소망** 외에는 한 번도 야망이나 고뇌가 깃들어 보지 않은 눈. 부스스한 머리가 늘어진 이마에 어느새 굵은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한 **중년의 그가 나는 또다시 낯설다.**

저만치서 고등학생들이 배드민턴을 친다. 공이 나비처럼 경쾌하게 날아와 라켓에 부딪치는 소리가 마치 젊은 연인들의 찰나적인 키스의 파열음처럼 감각적으로 들린다.

⑤ 나는 **충동적으로** 그의 이마의 주름 진 곳에 **그런 키스를** 퍼부었다.

그가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그가 아주 타인처럼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 박완서, 「나목(裸木)」 -



현재

현재

공감 X → 무관심

나와의 대립된 심리

심화

나는 결혼한 상태입니다.
첫대목이 대박입니다.
현재의 아픔 , 과거의 아픔을 독해하며 다 잡아야 합니다.

안녕
나는 숨을 죽이고 지그시 아픔을 견디며, 또 하나의 아픈
날을 회상한다. 꼭 이만큼이나 아팠던 날을 현재
그것이 심한 나의 그기(去家)기 천리던 나신언의 케디

이작품 독해다시하며 꼭 종락 전후 주인공의 아픔에 대해 공감해보세요.
정말 가져갈게 많은 지문입니다.

종락후 보면 어느새 중년이 되었네요.
세속적인 남편에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낮설 정도로!
현실도 매우 아픕니다.

왜 하필 현재아픔을 '숨을 죽이고 지그시...' 라고 했을까요?

혼자 참아내고 있으니까요...

왜 혼자 참아내고 있을까요?

자신에게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고 있나봅니다.

왜 현재의 아픔만큼과 똑같은 아픔을 숨죽이고 지그시 견디면서 회상할까요?

공감해 보세요~

남에게 표를 내지 않아요. 남편에게까지.
심지어 현재와 과거의 아픔이 같다고 합니다.
기출분석시에는 이정도 내면까지 잡아야합니다!

그날은 고가 가 혈렸던 날이라고합니다. 고가=나 를 동일시 하고 있습니다.

(문학감상시 동일시, 인식의전환 머릿속에 두는건 기본입니다.

독후해 속도,정확도 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 **고등학생들이 치는 배드민턴 치는 소리가 "주인공 심리와 대조 "** 이룹니다. (나비처럼, 경쾌하게...)

더 가져갈게 있네요.

하필 왜 작가는 고등학생들을 통해 심리대조 시키는걸까요?

생각해보기.

문제에서는,

4번선지의 표현방식으로 평가원은 묻고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변화시키고자하는....

남편에대한 나의 더 심화된 대조적인 나의 내면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충동적=돌발적)

㉠~㉣:중략전, ㉤:중략후

3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남편'의 행동은 ㉣에서 '나'가 지키고자 했던 대상을 보존하기 위한 '남편'의 배려심이 반영된 것이다.
- ② ㉠에는 '남편'의 행동 묘사를 통해 '남편'의 성격이 드러나 있고, ㉣에는 '남편'의 외양 묘사를 통해 '나'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 ③ ㉣에서 '나'는 '남편'의 삶에 동화되고자 하지만, ㉠에서 여전히 '남편'에게 동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 ④ ㉣에는 '남편'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심리가 드러나 있고, ㉤에는 '남편'을 낯설어하는 '나'의 감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돌발적 행위가 드러나 있다.
- ⑤ ㉣에서 드러나는 '은행나무들'에 대한 '나'의 집착은 ㉠에서 나타나는 '나'의 잠재의식과 연결된다.

드라마에서 나와 유명해진, <사막을건너는법>에서는

중략후 "노인"의 행동을 통해 통째로 주인공의 내면심리와 대조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꼭, 다시분석 해야 하는 작품입니다.

7 고전시가 클리셰

고전시가 주제중 가장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주제는 바로 "자연친화" 입니다.

자세한 이유는 생략하고, 실천적 풀이법은 바로 아래오! 같습니다.

- 자연(+) 과 속세(-)의 필연적 대비구조
- 따라서 내면세계는 1개 입니다.
바로 "자부심/만족감" (자족감).
- 이 단어와 충돌하는 선지부터 체크하면 됩니다.

<2025 9평>

자연친화 → 자부심, 만족감

33.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음보

- ① 각 수의 첫 음보를 동일한 시어로 제시하여 시장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제1수>와 <제2수>에서는 생활 도구를 언급하여 화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제1수> 중장과 <제3수> 중장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걱정은 각 수의 중장에서 강화되고 있다.
- ④ <제1수> 중장과 <제3수> 초장에서는 간단한 먹을거리를 언급하여 화자의 소박한 생활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제4수> 중장은 첫 음보의 감탄 표현을 활용하여 시장을 집약하고 있다.

올 9평 입니다.

3번선지 "화자 걱정", 자부심 만족감과 충돌하죠?

바로 이것부터 체크하면됩니다^^

<2024 수능>

32. ^{기형대사} (가), ^{자족감}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는 사물의 형태가 변화한 모습을 묘사하여 외부 환경의 영향력을 부각하고 있다. * 필연적 직결한 단어!!

③ (나)는 계절을 나타내는 어휘를 활용해 애달픈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자족감

④ (나)는 두 인물의 행위를 대비하여 대상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자족감

⑤ (가)와 (나)는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 X 나 X 자족감

아쉬움, 애달픔, 경외감 모두 "자부심 만족감" 과 충돌합니다~

<2023 수능>

화자

① (가)의 '초야우생'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와 자연의 이치가 일치된 공간에 존재하는 화자가 스스로를 이르는 말이겠군.

② (나)의 '내 혼자 알았노라'는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발견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말이겠군. 구화는 작명속.

축년
<천석고향>
2월 18

③ (가)의 '천석고향'은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 (나)의 '무릉도원'은 현실적 공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난 말이겠군. 추구. 소망. 희망

향기
지향

④ (가)의 '사람과 한가지라'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 화자의 인식이, (나)의 '가지가지 다 좋구나'는 자연의 가치를 확인한 화자의 심정이 나타난 말이겠군.

⑤ (가)의 '춘풍에 화만산하고 추야에 월만대라'는 계절의 양상을 통해 조화로운 자연을, (나)의 '벽류는 팔팔 흘러 옥 술잔을 때리는 듯'은 화자가 발견한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낸 말이겠군.

3번선지 "아쉬움" 보이시죠?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나)와 달리 자연물을 매개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X

② (가)는 (나)와 달리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인간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하고 있다. X

④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을 통해 풍류를 즐기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심리가 투영된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클리셰: 술 - 흥 - 풍류 - 자부심.만족감

3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의 '벼들'과 (나)의 '뼈꼭새'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② (가)의 '흥'과 (나)의 '정'은 자연에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이다.

③ (가)의 '어옹'과 (나)의 '농부'는 화자의 처지에 공감하는 인물이다. X → 속세

④ (가)의 '추강'과 (나)의 '밝은 달'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⑤ (가)의 '뉘짓대'와 (나)의 '백화주'는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자연친화 → 자족감

31.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연 ↔ 속세

<보 기>
(가)에는 속세를 벗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 작품에서 자연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 인간 세상과 대립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화자는 인간 세상을 멀리하고 자연에 귀의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① ㉠은 속세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에서 벗어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② ㉡은 화자가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이를 즐기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③ ㉢은 인간 세상과 대립되는 자연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군.
- ④ ㉣은 자연에 귀의하지 못한 사람으로 화자가 안타까워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군.
- ⑤ ㉤은 인간 세상을 멀리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8 협달손섬 엠츨

작수 현대소설은, 3인칭 그러니 당연히 ★ "초점화자"를 통해 시점을 제한시키는 '보기'가 또 출제되었고 (그동안 무수히 출제되어었쥬. 화산택이,삼대.....)

아래 <보기> 보세요 , 거의 똑같습니다.(삼대,소설가구보씨의일일...도 그렇고,,,모르면 기출 다시!)

31.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만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서술자는 인물과 거리를 뒀으로써 그들의 말이나 생각, 감정 등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이 밖에도 쉼표의 연이은 사용은 시간의 지연이나 인물의 상황 등을 드러낸다. 이러한 서술 기법은 문맥 속에서 글의 의미를 다양하게 보충한다.

27.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보 기>

서술자는 자신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거나, 인물의 시각에서 인물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여 서술한다. 즉 '서술'은 서술자가 담당하지만 '시각'은 서술자의 것일 수도, 인물의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2.09>평가원

작수 현대소설은,

인물간의 내면심리 통해서 ★공감여부만 집중적으로 문제화 되었습니다.

<작수 현대소설 분석>: 보기.로 3인칭 초점화자 개념 알려주며 각 인물들의 내면심리만 문제화!!

1번문제 - 인물들의 내면심리 (숙내) 드러난 여부

2번문제 - 각 인물간의 내면심리

3번문제 - 영감과 양서방의 내면심리-영감은 아내와 생각이 같다 - 공감여부 체크하면 너무쉬운 문제가 정답률 36%!!

4번보기문제- 할머니 내면심리

그러면,

올해는 아마도.... 1인칭 시점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보기>는 "나" 의 심리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내용을 설계할겁니다.

★★★남은기간 대응방안 : 시간이부족한부들은, 그동안 기출 현대소설중에서 "1인칭" 만 다시 지문독해 하며 풀어보는게 가장 효율적일듯합니다~

올해 9평은,

3인칭인데 그동안 자주 나왔던 "우유부단한", 중도적... 인물이 또또 등장합니다.

최근 유사기출로는 작년 6평 무성격자의 정일 이 떠올라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선지구성적 측면입니다.**

서술부는 너무 정확히 <보기>와 적절하도록 유도해 함점을 파놓았네요!

민도식은 작업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물임을 독해했다면 너무 쉬운문제인데 오답률이 매우 높습니다.

★**투쟁:** 실제 행동으로 옮겨 싸움, 주인공과 대비되는 성격의 소유자 권씨 그리고 중략이후에 나오는 젊 은청년!!

보기. 문제는 두 인물의 서로다른 사건(투쟁-논쟁)을 대비시켜 놓은 선지인것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6평은,

1인칭입니다.

(1인칭은 특히 동일시여부 / 인식의전환 여부 체크하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역시 1인칭답게 <보기> 가 주인공의 심리적특면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인칭기출 모두 보श्य~

부정적 기억(트라우마)이 긍정적방향으로 바뀐(재응고화)

이런걸 저는 "인식의 전환" 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솔하게 나왔던 기출이기도 합니다.)

역시,

지문독해도 "나"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 이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주인공의 심리와 대조되는 상황을 알고 있는지(클리셰) 묻는 문제가 28번입니다.

소대원들 낄낄.....나는 슬픈데...

(심리대조 상황관련내용은 클리셰입니다! 이전 칼럼 참고)

29번은 바로 EBS로 줄거리달달 외우고 풀면 틀리라고 설계된 문제입니다.

바로 5번입니다.(EBS해설은 5번처럼,독해대충하면 바로 fake선지에 낚입니다!)

(이전 칼럼에서 현대시,

설명할때도 언급했습니다.

올해 문학, EBS해설 외우고 그대로선지 판단하려하면 의문사 제대로 당할 수 있습니다~)

정답 선지는 4번, 즉 아버지와 어머니에대한 "주인공 나" 의 내면심리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당연, ebs해설대로 암기하고 풀 수 있는 올해도 없습니다!

이정도는 예측하고 ebs 공부하세요~

★대응: 1인칭일경우 동일시 여부, 인식의전환여부 느껴지면 그게 포인트입니다.

★★★ 올해 현대소설 대응방안 ★★★

올해는 주인공의 성격과 대조되는 인물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막을건너는법,무성격자처럼 인식의 전환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1인칭시점 기출부터 다시 분석 해보세요~

9 현대시 내면정서 구분하기(대상,화자)

시는 화자중심적 시와 대상중심적 시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화자가 대상 관찰위주라면(조지훈 승무, 백석 여승...) 대상중심인 시인데, 이때,

많은 학생들이 위 두시를 구분하기 어려워하니 화자의 내면정서도 구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올 9평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나무가 슬퍼하던것을 기억한다"

(EBS해설로만 암기하고 접근하면 9평 24번의 2번선지는 틀린선지입니다. 화자가 슬퍼한다....)
이는, 대상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게 아니고, 화자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것이죠!(세계의자아화)

그래서, 대상중심 즉 화자가 관찰자 입장인 시가 감상독해시 훨씬 더 불편한 이유입니다.

<백석 여승>

(가)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밤 → 쓸쓸한 날이 넷날같이 늙었다

→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연민

현재

평안도(平安道)의 어니 산(山) 깊은 ㉠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경향)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
었다

섭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山)평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감정이입: 외부로 투영

㉡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 「여승(女僧)」 -

1연에서 화자는 서러워합니다.

화자의 내면정서인데 이게 자신의 정서를 투영한건지(세계의자아화) 대상에 대한 연민인지 주의 해야합니다.

여기서는 당연 대상에 대한 정서(=연민,공감)입니다!

<조지훈 승무>

(가)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불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조지훈, 「승무」 -

3연에 정서가 드러납니다. 서러워하고 있습니다.

위의 시와 마찬가지로 대상에 대한 정서!(=연민.공감) 이지 화자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게 아니죠^^

<박목월 나무>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늪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떼를 쥘**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 **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세계의 자아화**
= 내면 세계 (정서) → 공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 **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 **나무에게 동경감** - 박목월, 「나무」 -

마지막 5번째줄정도에 보면, "나무들이 외로워 보였다" 라고 합니다.

이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아니고 바로, 을 9평에 출제되었던 대상에 화자의 정서를 투영(=세계의자아화)한것입니다.

이제는 화자의 내면정서를 완벽히 구분할 수 있겠죠?

♥ 이게 출제포인트입니다. ♥

★<백석 수라>★

(가)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 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어니젠가* 새끼 거미 쓸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짜기도* 전이다

어데서 좁쌀알만 한 알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
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
가 쉬이 만나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 백석, 「수라(修羅)*」 -

올해 중요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2연에 보면, 화자는 서러워하고 있습니다.

★ 정답은? 몇번일까요.

①대상에 대한 정서(=연민)

②화자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세계의자아화)

10 서정갈래 실전적 태도

문학의 경우,
현대문학에서 변별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현대시의 경우 빠르고 정확히 풀어내지 못하면 소설에서 시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고전시가는 자연친화의 내면세계는 딱1개 자부심/만족감(자족감) 이니 쉽게 처리해야하며,
나머지 내용의 시가는
<보기>기준으로 현대시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주의: 고전시가는 요즘 트렌드가 보기. 에 한작품에 3~4개의 내용을 주고 판단하게 하고 있으니 이부분에 유념해서 선지판단해야 합니다!)

(수필은 자신의 경험통해 얻은 "깨달음" 하나만 잡으면 다 해결됩니다.

다른부분은 스키밍하며 읽고 깨달음 하나만 잡는 다는 생각으로 읽으면됩니다.

수필 빠르게 안풀리면 이거 가지고 계속 최근 기출 적용해보세요. 수필을 소설처럼 자세히 꼼꼼하게 읽을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능 <보기> 중 (나),(다) 보기에서 보기.만보고
"(나)" 작품 주제를 "긍정 +" 으로 잡은 수험생이 몇이나 될까요!.

아래내용 읽어보시면 별내용 없어 보이는 <보기> 라 할지라도
평가원은 분명 주제를 숨겨 놓을수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5수능 현대시/고전시가 실전풀이 대원칙>

1. <보기>부터 보고 주제잡기
2. <보기>문제는 반드시 잡은 주제기준으로 "선지 서술부와 보기의 내용일치" 로 빠르게 풀기. ★평가원의 핵심코드★
3. 부분 문제들 풀때 "주제(긍정/부정)" 로 추려진 1~2개의 선지만 판단하기.(서술부체크)
4. 첫번째 문제 표현상문제는 필연성 표현이용하여 5초안에 풀기.
5. 고전시가만의 클리셰(자연친화)는 빠르게 처리.
(*4번 5번 내용 이해안되면 이전 칼럼 꼭 읽어보세요!)

<9평 현대시> 적용해보기

<보기> 를 통해서 (나)의 시는 부정적인 주제의 시인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제: 화자는 물고기를 보며 어린시절 생가에서의 시린(아픈)기억 회상!

23번문제.

(나)지문을 근거로 선지추려본다면, 1번 생가 에서의 "서글픔"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번선지부터 확인하러 가면됩니다.

또는

(가)지문을 근거로 선지추려본다면, (가)는 <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24번 문제를 통해서 범주 가 잡히는지 체크해 봅니다.

"이별" 이 너무 쉽게 잡힙니다.

★클리셰★ : 이별-->부재,상실감,애상감,비애감-->그리움

23번 1번선지보면 딱 이 단어가 보여야 합니다. "상실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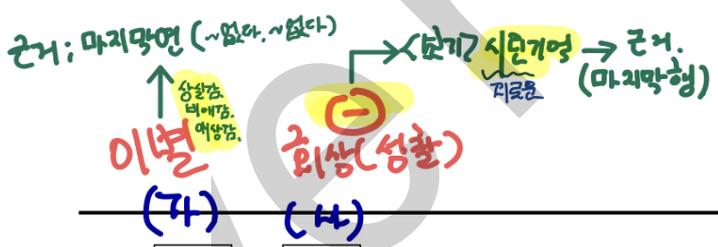
완전 클리셰입니다.

문학은, 이렇게 부분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비문학을 여유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주제: 물고기네 보여 자신의 생각을 회상(시원기여)

<보 기>

이 시에서 성년이 된 화자는 얼음 아래의 물고기를 보면서 유년 시절 자신의 생각을 회상한다. 화자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물고기네'의 여기저기를 본다. 그리고 '물고기네'의 모습에 화자의 생각에 대한 기억이 겹쳐진다. 화자는 자신을 물고기에 투영하면서, 성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생각에서의 '시린'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23. 태반과 생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태반에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나)의 화자는 생각에서 서글픔을 느끼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태반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나)의 화자는 생각에서 느꼈던 수치심을 떠올리고 있다.
- ③ (가)에서 태반은 이별을 수용하는 공간이고, (나)에서 생각은 만남을 기약하는 공간이다.
- ④ (가)에서 태반은 화자의 희망이 드러나는 공간이고, (나)에서 생각은 화자의 절망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 ⑤ (가)에서 태반은 생명의 섭리를 지향하는 공간이고, (나)에서 생각은 생명의 섭리를 거부하는 공간이다.

(가)지문 : '이별' 범주가 쉽게 잡혀야 합니다.

(가) 범주: 이별 → 슬픔 → 그리움
(애상감, 미애감, 상실감) → 애되는 마음 (조용년경 1)
24.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에서는 여러 민족, 나라, 지명을 열거하여, 화자가 떠난 공간을 북방으로 포괄되는 동질적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에서는 의인화된 자연물을 제시하여, 화자가 북방을 떠나면서 느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이별

세계의 자연화
수득하기가 더
필수 없는 원리!!
(자연물의 아우러짐)
"EBs 허연"

③ ㉢에서는 이별하던 장면을 유사한 통사 구조로 제시하여, 화자가 북방에서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④ ㉣의 시구가 ㉡에서 반복, 변주되는 것을 통해, 상반된 상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에서 '없다'와 그 앞에 열거된 시어들을 통해, 화자가 가깝게 느끼고 가치를 부여했던 것들이 부재함을 표현하고 있다.

을 6평에도 적용해 보세요. 33번 문제 3번선지로 정말너무쉽게 추려집니다.

<작년 수능> 에 적용해보기

(가)지문은 <보기>에 의해서 긍정(+)으로 쉽게 주제가 잡힙니다.

주제: 자연이 가진 힘은 인간의 역사에 관여하여 "이상" 을 향해 나아간다.

(나)지문은, <보기> 에의해 역시 긍정(+)으로 쉽게 잡힙니다.

주제: 대상속성에 주목하여 "깨달음" 을 얻음.

(가) <보기> +

(자연의 힘이 인간은 이념지향 기능)

주제: 자연의 힘을 인간에게 관여한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제: 자연 → 인간

<보 기>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이를 통해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보기문제는,

자연의 힘이 인간에게 관연해서 인간이 "이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요정도... 간단한 주제만 잡아도 바로쉽게 풀리는 문제인데, (자연-->인간.... 이거 떠오르지 않았어도....) 보기 독해를 너무 대충하고, <보기>의 내용을 너무 간과하는게 아닌가 싶은생각이 드네요.

★<보기>에 평가원은 반드시 중요한 주제정보를 제공합니다.

(나) <보기> +

~~27.~~ <보기>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나)와 **(다)**에는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하여 얻은 인식이 드러난다. 이는 대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미를 보여주는 방식이나,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여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나)지문의 문제입니다.★

<보기>는 뭐 별내용 없어요입니다. 하지만! 수필은 당연 +

이런보기는, 평가원이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이런 보기를 개떡같이 보는걸 아니,

찰떡같이 보는 수험생의 경우, 긍정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마치 숨겨놓은것 처럼...

그러나 이러한 기출은 처음나온것도한 아니니 ... ★★어쨌든 평가원이 별거 아닌 내용처럼 보이게 만든 보기.

내용에 중요한 힌트를 주고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낚아채야합니다!

3번선지의 "신명나는 일에 연결하여" 부분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선지부터 빠르게 체크합니다.

너무 간단하니 조금만 기출로 연습해 보세요!

올 수능 등급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4.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상황과 '손을 터는' 행위가 '한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것임을 드러낸다.
- ② [B]에서는 '고집 센'과 '도리 없는'을 통해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두 대상의 성격을 부각한다.
- ③ [B]에서는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는 대상을 '신명 나는 일'에 연결하여 '정수리를 타 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다.
- ④ [A]에서 '가지만의'와 '혼자서는'에 나타난 가지의 상황은, [B]에서 '달 밖'을 가두어 [C]에서 '획'을 긋는 가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 ⑤ [A]에서 '않았다면'과 [B]에서 '아니었으면'이 강조하는 대상들의 의미는, [C]에서 '목련'과 '감나무'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22번문제는,

표현(형식)과 내용을 동시에 묻는 문제입니다.

짧으면 5초내외 길어야 10초내외로 풀어야 합니다.

필연성 표현 모르면 앞의 현대시 관련 칼럼 읽어보세요!

1번, 2번 선지만 체크해야 합니다.